



유성 교섭 시작합니다!

유성기업 유현석 사장 나온다

유성지회의 끝장 투쟁에 유성기업이 반응하고 있다. 유시영 회장의 아들인 유현석 사장이 직접 서울 본사 농성장에 나와 유성 영동, 아산 지회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또 금속노조 위원장을 만나 29일(월)부터 교섭하기로 약속했다.

유성지회의 끝장 투쟁으로 내외부에서 상당한 압박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시영 회장의 아들인 유현석 사장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의지를 갖고 교섭에 임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동안 유성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유성기업은 법적 처벌, 유시영 회장 구속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교섭만 진행하며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번엔 진정성 있게 교섭에 나올 것인지가 유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지부 총파업! 조합원 1만원 특별 결의금!

유성을 둘러싼 조건은 어느 때보다 좋다. 예전처럼 노동부, 경찰, 검찰이 유성 사측을 비호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지회, 지부, 노조 모두 반드시 끝장낸다는 의지도 강하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10월 15일 농성이 시작된 후로 지금까지 매일 전면파업을 벌이며 투쟁을 상승시키고 있다. 전면파업으로 생계비까지 모두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꼭 승리한다는 결의로 전면파업에 나서고 있다.

지부는 이 투쟁을 확실하게 지지엄호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지부는 25일(목)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투쟁의 상황

에 따라 언제든지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해서 유성지회를 엄호할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언론사의 관심이 쏟아졌고, 기자회견 후 개별 인터뷰까지 이어질 정도로 화제가 됐다. 그만큼 유성지회의 투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지부의 총파업 의지는 확실히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29일 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유성지회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조합원 1만원 특별 결의금까지 결의했다. 유성투쟁이 지금까지도 지부 조합원들의 월2천원 결의금으로 투쟁을 이어왔고, 이번 끝장투쟁에서도 지부 전체 조합원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 유성 자본이 어설픈 시간끝기로 유성투쟁의 힘을 뿜 생각이라면 바로 접는게 좋다. 유성지회 뒤에는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의 힘이 있다.

이렇게 투쟁하면 반드시 이긴다!

지회 조합원들의 드높은 결의, 지부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이 합쳐진 이번 유성 투쟁은 반드시 이긴다. 지회의 전면파업, 지부의 총파업, 지부의 특별결의금으로 이어지는 투쟁의 고리는 유성 자본이 절대 끊을 수 없다. 시간이 갈수록 투쟁은 더 단단해지고, 커질 것이다.

지부는 이번 유성 투쟁을 승리하고, 지부와 지회의 힘이 합쳐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공식을 만들 것이다. 그 승리의 힘이 지부 내 전체 사업장들에 스며들어 대전충북 지역에서는 자본이 다시는 노조파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승리의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